

◆ 북미

- AIG, 손해보험사업에 역량집중

◆ 유럽

- 유럽(Europe), 부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
-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, 금융시장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

◆ 일본

- 일본 내 AIG 생명보험 3社, 2주 내 입찰 방식으로 매각 추진
- 일본 대형 은행 및 생보사, 4~9월 중 주식평가 손실 2조엔

◆ 중국

- 중국핑안(中國平安), 포티스그룹 투자로 170억 위안 손실 가능성
- 중국,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대거 해약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【 복미 】

□ AIG, 손해보험사업에 역량집중

- AIG 그룹은 생명보험부문을 매각하고 기업 손해보험과 해외 손해보험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함.
 - AIG는 연방준비은행(FRB)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850억 달러 중 610억 달러를 이미 사용하였으며 대출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출상환을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임.
 - AIG의 CEO인 에드워드 리디는 손해보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개별 고객 서비스(private client operation)를 제외한 개인보험 부문은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함.
 - AIG의 손해보험부문은 2007년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바 있음.

- 그러나 AIG는 생명보험부문을 매각할 계획임에도 해외 생명보험사업 중 주요 부문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.
 - AIG는 홍콩 AIA의 지분을 일부만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홍콩 AIA의 지점인 한국 AIG생명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.
 - 또한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부분매각도 고려하고 있으며 런던 시티 공항(London City Airport)의 지분 50%를 이미 매각한 바 있으며, 금융사업과 증권담보 대출 부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짐.

- 리디는 AIG의 매각계획이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으나 매각작업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.
 - 또한 매각을 위해 많은 상대들과 접촉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매각작업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.

(Insurance Journal, 10/3)

【 유럽 】

□ 유럽(Europe), 부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

- 지난 28일 영국 정부가 부실 모기지업체 브래드포드앤빙글리(Bradford & Bingley)를 국유화하겠다고 밝히는데 이어, 유럽 3개국(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)이 포르티스(Fortis)에 대해서도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전함.
 - 포르티스는 네덜란드·벨기에 합작 금융보험그룹으로 85,000명의 직원을 둔 유럽 최대의 금융기관 중 하나이며,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.
- 이브 레테름(Yves Leterme) 벨기에 총리는 유럽연합(EU)과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 3개국 장관 및 유럽중앙은행 총재와의 릴레이 협상을 통해 포르티스를 부분 국유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.
 - 당초 포르티스는 프랑스의 BNP파리바, 네덜란드의 ING 등과 부분 또는 전체 매각을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, 3개국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며, 이에 따라 3개국 정부가 112억 유로를 포르티스에 투입하게 되었다고 밝힘.
- 파산위기로 구제금융이 투입되면서 부분국유화 진행되고 있는 포르티스는 주식교환을 통해 포르티스 벨기에 은행 사업부 지분 75%와 보험사업부 전부를 프랑스은행인 BNP파리바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였음.
 - 또한, 네덜란드 정부는 포르티스 네덜란드 사업부를 국유화, 룩셈부르크 정부도 포르티스 룩셈부르크 법인의 지분 33%를 그대로 보유할 것이라고 전함.

(The Daily Star 9/29 & Reuters UK, 10/3)

□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, 금융시장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

-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은행 산탄데르는 험값에 나온 금융회사들을 골라 인수하면서 유럽지역 최대의 은행으로 떠오르고 있음.
 - 이는 스페인 중앙은행이 구조화 신용투자(Structured Credit Investments)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산탄데르가 소매금융에 집중하게 되었고, 이것이 오히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호재로 작용한 것임.
 - 또한, 산탄데르는 적극적인 M&A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 걸친 사업 다각화를 비롯한 급성장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진출이 성공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임.
- 산탄데르 은행은 최근 얼라이언스앤레이세스터(Alliance & Leicester)은행을 22.4억 달러에 인수 단계를 마무리하였으며, 지난달 29일 영국 정부가 모기지업체인 브래드포드앤빙글리(Bradford & Bingley) 국유화 결정을 하자 바로 B&B의 소매금융 부문을 10.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함.
 - 이로써 산탄데르 은행은 영국 개인대출시장(home lending market)의 약 13%를 차지하게 되었음.
- 이 같은 스페인 최대의 산탄데르 은행은 1857년 스페인 북부의 작은 항구 도시인 산탄데르에서 무역금융 전문은행으로 출발했으며, 1985년까지만 해도 자산기준으로 세계 152위, 스페인 6위에 불과한 은행이었음.
 - 그러나 산탄데르는 90년대 초 에밀리오 보틴(Emilio Botin)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스페인 자국은 물론 언어와 문화가 엇비슷한 중남미 지역의 센트럴히스파노은행(Banco Central Hispano)을 인수함으로써 스페인의 최대 은행으로 거듭나게 된 것임.
- 크레딧스위스(Credit Suisse)에 따르면, 산탄데르는 올해 추정하고 있는 수익 가운데 1/3에 해당하는 146억 달러 정도가 급성장하고 있는 남미지역에서의 수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.

(Yorkshire Post & Spiegel Online, 10/02)

【 일본 】

□ 일본 내 AIG 생명보험 3社, 2주 내 입찰 방식으로 매각 추진

- 경영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아 사실상 미국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미국 AIG가 일본에서 영업 중인 3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2주 내로 매각 입찰을 추진하기로 함.
 - 일본의 손해보험 최대기업인 도쿄해상 홀딩스가 인수를 검토 중에 있으며, 독일의 알리안츠그룹, 영국의 프르덴셜, 프랑스의 AXA, 캐나다의 메뉴라이프 등의 보험그룹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격렬한 쟁탈전이 전개될 전망이다.
 - 미국 AIG가 매각을 결정한 회사는 일본의 알리코재팬과 AIG스타생명보험, AIG에디슨생명보험임.

- 매각의 중개 업무를 희망하는 골드만삭스 등이 일본 국내외의 보험회사에 대해 입찰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.
 - 각 사는 모두 미국의 알리코재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, 도쿄해상은 자산 및 재무상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음.

- AIG는 당초 개별교섭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을 모색했지만 미국 정부의 관리 하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방법으로 매각방법을 변경함.
 - 알리코재팬은 미국 본사를 중심으로 해외사업이 일괄 매각될 공산이 크며, 전체 보험료 수입은 2조엔 규모로 매각규모도 12조엔으로 추정되고 있음.

(산케이신문, 10/5)

□ 일본 대형 은행 및 생보사, 4~9월 중 주식평가 손실 2조엔

-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일본 금융회사의 9월말 보유주식 평가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- 니혼(日本)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 7사가 지난 30일 밝힌 바에 의하면 7사가 보유하는 국내 주식 평가이익은 9월말 합계 약 5조 4,830억엔으로 3월말에 비해 약 1조 700억엔 줄어들었음.
 - 특히 아사히(朝日)생명이 잠재손실을 확대시켰으며, 다른 6사는 평가이익이 감소함.
 -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한 임원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이 계속되어 주식 이외에 자산을 투자하려고 해도 운용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함.
- 한편,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미츠비시UFJ파이낸셜그룹 등 6개 은행그룹의 9월말 보유주식 평가이익은 약 2조 8,000억엔으로 3월말에 비해 약 1조엔 줄어 든 것으로 추정하였음.
 - 대형 은행의 평가이익이 이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2004년 12월말 약 2조 6,000억엔 이후 3년 9개월 만임.
 -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표면화되기 이전인 2007년 6월말(9조 9,000억엔)보다 약 70%나 줄어든 것이며 평가이익의 감소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저하로 연결되어 대출 억제를 유발할 수 있음.
 - 그러나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쿠마노 히데키 수석연구원은 “대출거부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”는 입장을 밝힘.

(산케이신문, 10/1)

【 중국 】

□ 중국핑안(中國平安), 포티스그룹 투자로 170억 위안 손실 가능성

- 중국핑안(中國平安)이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벨기에 포티스그룹에 대한 지분매입으로 거액의 투자손실을 보게 되면서 포티스그룹에 대한 투자손실을 3/4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.
 - 중국핑안은 지난해 11월 18.1억 유로를 투자해 포티스그룹 주식 9,501만 주(전체 지분의 4.18%)를 매입함으로써 단일 최대주주로 기록되기도 했으며, 이후에도 신주발행 주식의 5%를 추가매입 함으로써 최대주주 자리를 지켜나갔음.

- 금년 7월 초 포티스그룹에 대한 투자손실이 100억 위안에 달하자 반기보고서에 투자손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, 중국핑안은 ‘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이므로 일시적인 주가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평가손실을 장부에 반영하기 어렵다’며 이를 보류함.
 - 그러나, 최근 포티스그룹이 리먼브러더스 채권 1.37억 유로 보유, 풋백 옵션 2.7억 유로 및 신용파산스왑(CDS) 700억 유로 손실 발생 공시를 내면서 포티스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, 이에 중국핑안도 더이상 손실을 안고 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임.

- 포티스그룹 주가는 중국핑안이 매입 당시 대비 약 71% 하락하였으며, 총 투자금액 238억 위안으로 계산할 경우, 중국핑안의 포티스그룹에 대한 투자손실은 약 17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.

(제일재경일보, 9/27)

□ 중국,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대거 해약

- 최근 중국 주식시장이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된 투자연동형 보험상품(주식투자 수익율과 연동된 보험상품)의 해약이 크게 늘고 있음.
 - 중국 보감위는 이와 같은 현상이 보험시장의 정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집중관리에 들어갈 태세임.
 - 지난 9월18일 상하이(上海) 보험감독국은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의 해약열기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며 보험회사 책임자들을 불러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판매 자제를 촉구했음.
-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해약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‘주식으로 흥한 상품, 주식으로 망한다’는 격언을 대입시키며,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위험보장과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 오히려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전함.
 - 그러나 주식시장 하락세는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해약열기의 외적요인에 불과하다며, 실질적인 원인은 가입 시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임.
- 지난해 크게 상승한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재미를 본 소비자들은 언젠가는 다시 한 번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지만, 대부분 소비자들은 언젠가 될 지도 모르는 그 시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임.
 - 중국 보감위에서는 상하이를 시발로 조만간 투자연동형 보험상품 해약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.

(신량재정, 9/29)

【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】

구분		07년 말	08.9.26(금)	08.10.3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韓 국고채(3년)	5.74	6.01	5.70	-0.31
	美 10년국채	4.03	3.87	3.64	-0.23
	英 10년국채	4.51	4.53	4.39	-0.14
	日 10년국채	1.51	1.48	1.45	-0.03
주가	韓 KOSPI	1,897.13	1,476.33	1,419.65	-3.8%
	韓 KOSDAQ	704.23	448.34	432.10	-3.6%
	美 DJIA	13,264.82	11,143.13	10,325.38	-7.3%
	美 Nasdaq	2,652.28	2,183.34	1,947.39	-10.8%
	英 FTSE100	6,456.90	5,088.47	4,980.30	-2.1%
	獨 DAX30	8,067.32	6,063.50	5,797.03	-4.4%
	佛 CAC40	5,614.08	4,163.38	4,080.75	-2.0%
	日 Nikkei225	15,307.78	11,893.16	10,938.14	-8.0%
	中 상해종합	5,261.56	2,293.78	휴장	-
	대만 가권	8,506.28	5,929.63	5,742.23	-3.2%
	홍콩 항셱	27,812.65	18,682.09	17,682.40	-5.4%
환율	원/달러	938.20	1,160.50	1,223.90	63.40
	원/100엔	833.33	1,091.13	1,123.30	32.17
	엔/달러	112.58	105.89	105.74	-0.15
	달러/유로	1.4722	1.4618	1.3792	-0.0826
	위안/달러	7.3041	6.8431	6.8451	0.0020

주: 韓 국고채(3년), 韓 KOSPI, 韓 KOSDAQ는 10월 2일 기준이며, 중국은 국경절로 1주일간 휴장함.